

# 성 유대절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관 련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축**  
**세**  
**례**

**“하느님의 자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일시: 5월 24일(오늘), 오후 3시

- 성당 출입 자침 안내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 날씨가 무더워 지는 요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 마스크 착용 필수
  - 성당입구에 비치 된 문진표 필히 작성(개인필기구 지참)
  - 손 세정제 사용
  - 발열 체크
  -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성당모임 금지

- 미사 시간 안내
    - 당분간 매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면역력이 약한 신자와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이 큰 신자들 에게는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관면합니다.
- |   |       |                           |
|---|-------|---------------------------|
| 평 | 월·토   | 오전 6시                     |
| 일 | 화 ~ 금 | 오전 6시, 10시                |
| 주 | 토요일   | 오후 7시                     |
| 일 | 일요일   | 오전 6시, 9시, 11시, 오후 5시, 7시 |

- 새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6월 14일(주일) 오후 12시 20분
  - ※ 6월 14일(주일)이후에는 교리 수업 진행을 위해 예비신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성모의 밤 행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
  - 5월 30일(토)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성모의 밤 행사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일 성모동산, 로사리오 동산, 십자가의 길 축복식이 있습니다.
  - 최근 새로 단장 된 성모동산이 잘 조성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본당 토막상식 -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 동산



박순재 라파엘 문시놀게서 본당에 주임신부로 부임하신 후 신자들의 기도와 묵상 공간이 부족하다 여겨 봉헌금을 모아 성당 마당 둘레에 십자가의 길 14처와 로사리오 동산 조성을 위해 최봉자 레지나 수녀님께 의뢰하여 1995년 11월에 제작 설치하였다.

로사리오 동산은 성당 정문 오른쪽 샛길을 통해 갈 수 있으며,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화강암 중앙에 장미 문양과 묵주기도문을 넣어 제작 하였고, 동산 중앙에 성모자상을 배치 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빛의 신비가 없었으나 이번 마당 보수공사를 통해서 빛의 신비를 추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본당마당의 성가정상도 같이 놓여졌다.

- 5월 ‘성모의 달’ 꽃 봉헌
  - 성모의 달을 맞아 제대 꽃을 봉헌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24일(오늘): 홍보주일 2차 헌금

성가번호    입 당: 141            예물준비: 218, 219            성 체: 163, 166            파 견: 137

화 답 송

환 호 소 리 가 운 데 하 느 님 이 오 르 신 다 -

나 팔 소 리 가 운 데 - 주 님 이 오 르 신 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22)

네 번째 나눔\_하느님께 이르는 일상적 친밀함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되어가는 노년기

노인이 되면 점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쇠퇴의 과정을 거친다. 기억력이 감퇴되고, 육체적인 능력과 매력이 사라진다. 과거의 업적이나 경력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동료들 기억에서도 사라진다. 주름살과 늘어진 피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하얗게 변해버린 백발, 가족과 주위 친구들이 하나 둘 잃게 하는 죽음 등의 주어진 한계 체험은 우리 자신의 삶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연스런 과정에 반발하는 무리들이 있다. 바로 <꼰대>다. 꼰대라 불리는 사람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이, 직위, 경험을 내세워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가르치려드는 노인이 있다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쇠약과 사회적 범위의 축소 과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영성 훈련으로 인도함을 깨닫는다면 그는 지혜로운 노인이다.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

저자는 육체적, 정신적 쇠약과 그에 따른 사회적이고 존재적인 축소의 경험은 그 자체가 하느님께 다다른 영성 훈련이라고 강조한다. 노화에 따른 전인적인 변화로 두렵고,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용기와 의지를 드러낸다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외적 능력, 관심사, 혹은 갈망은 줄어들겠지만 우리의 내적인 삶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적 삶을 지향하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했던 자아를 포기할 때 비로소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바를 내어 주는,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이다. 나이들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영신 수련이다. 나이 먹고, 늙어가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으로 약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투명인간>으로 취급받는 소외감을 느낀다하더라도 삶의 넓은 지평을 바라보고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본향을 그리워하고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20세기 신학자 로마노 가르디니는 노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노년에 이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완고함은 삶의 전환기 체험을 통해 부드럽게 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넓어진다... 마지막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전체가 시선에 들어오게 된다.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시야는 확장되고 넓은 공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99쪽)

2020. 05. 24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률		교무금 납부 현황					
부활 제 6주일 봉헌금	7,196,500원	총 세대수	3,343세대				
교무금	20,480,000원	총 납부세대	964세대				
성소후원금 (6건)	115,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22세대				
		총 납부율 (%)	28.8%				
감사 헌금 (05/13~05/19)							
이 헤레나	30,000원	정 돈보스코	100,000원	제갈 레오	100,000원	김 베로니카	50,000원
조 소피아	100,000원	이 아퀴나스	100,000원	김 소화데레사	100,000원	익명	100,000원
임 마테오(시설보수)	2,000,000원		합계: 2,680,000원				
꽃 봉헌 (05/13~05/19)							
전 마리아	50,000원	이 미카엘	100,000원	구 스텔라	100,000원	김 아네스	20,000원
임 바오로	100,000원	황 안나	300,000원	이 빠뜨리치아	100,000원	김 울리아	100,000원
김 안나	50,000원	조 소피아	50,000원	김 베로니카	20,000원	박 시몬	50,000원
송 카타리나	20,000원		합계: 1,060,000원				